

事故 또는 補償性

神經症의 臨床例

가톨릭의대 부속 성모병원 신 영 자

서 론

사고성 또는 보상성 신경증에 관하여는 이미 1932년 Huddleson J. H. 에 의하여 상세히 보고된 바 있으며 그 후 많은 연구를 거쳐 본증은 정신 신경증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정을 받고 있는 바이다. 본 질환은 직장에서의 공무중의 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적 외상후에 제기되는 보상금 또는 연금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경증적 정서반응으로서 hysterical conversion 등의 각종 증상과 아울러 이차적 병적 이득 문제가 개입되는 것으로 특징 지워지고 있다. 과거에는 본 질환이 외상후에 생기는 것이라 하여 외상후 신경증이라고도 불리운 바 있으나 엄밀한 개념상의 문제의 초점이 “외상후”라는 문제보다는 “보상문제”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으므로 보상성 신경증이라는 병명으로 분류되었다. 본 증은 그러므로 외상후에 따르는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환자의 내적갈

등의 해결과 보완(補完), 발산 등의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정서적 갈등의 해결은 외상후에 발생하는 신체적 결손 또는 활동제한의 보상이라는 상징적 의의를 갖는다. 즉 외상에 의한 신체상의 결손을 보상금으로 해결함에 있어 환자는 자신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려는 심리적 효과가 내포되는 것이다. 보상신경증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소위 질병에 의한 이차적 병적 이득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인 환자는 신체적 외상을 과장하여 입원기간의 연장 또는 보상금의 증액을 시도하려는 심리적 변화와 신경증적 증상의 형성이 이 질환에서 크게 문제가 된다. 본증의 주요 증상으로서서는 anxiety, hypochondriasis, conversion 증상을 보이며 역동학적으로 정서적 미숙과 불안정 상태를 보이는 신경증적 인격의 소유자 간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의심하고 과대한 경우 정서적 불안정과 더불어 타인의 주목과 동정을 요구하는 경향이

질병 구성에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본증의 유발조건으로서의 외상후에 발전하는 가족들의 지나친 걱정이나 가해자의 책임문제의 복잡성이 중요하며 의사와 간호원 등 치료에 종사하는 인원들의 질병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이나 부주의한 언동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있다. 또한 보상문제로 야기되는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과 복잡성은 본 신경증발생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본증은 의상이 심할 때 보다는 경미한 경우에 더욱 발생율이 높고 병의 회복기, 직장에서의 퇴직시, 입원 기간중 지나친 친절을 받을 경우 등 특히 유발이 많으며 보상제도가 발달된 선진국인 경우 그 발생율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 본증의 예후는 본 질환의 성격상의 신경증적 경향이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보상문제가 해결되었을 경우에도 완치가 불가능한 예도 있으나 보상문제의 이상적 해결만으로도 잘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본증의 예후는 병전 성격에 크게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본 신경증의 치료에 있어서는 psychotherapy가 적용되며 보상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보상금 또는 년금의 일시불로 이 문제에서 되도록 속히 떠나도록 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은 질환을 가진 증례의 간호에 있어 흥미롭게 생각되는 점이 있어 이에 그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성별 : 남자

년령 : 47

입퇴원일 : 1965. 5. 25. → 65. 6. 9.

Chief complaints;

1. headache.
2. anesthesia on the upper extremities.
3. deafness & Tinnitus on the right ear.
4. pain in the right flank.

Present illness;

환자는 1965. 4. 27. 음주후 귀가 도중 시내버스에 부딪쳐 사고현장에서 의식상실과 두부외상을 받아 입원 진찰 한 결과 두개골절을 수반하는 심한 외상으로 판정되어 성 바오로 병원에 4월 28日 입원하였다. 환자의 의식상실은 입원 제 6일까지 계속하였으며 의식회복 후에 상기 주 증상과 더불어 정신증상의 발현으로 '65. 5. 25. 성모병원 신경정신과에 전(轉)입원케 되었다.

전입원 당일 환자는 이미 보상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등 문제에 대하여 가족들도 지나친 관심을 보였다.

Family, Social, Cultural background.

출생지는 함경남도 원산으로서 당시 부친은 산림주사로 생활은 부유한 가운데 살대 특자로서 출생 함. 부모가 가톨릭신자로서 유아영세하여 증

교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별로 어려움을 모르고 지냈다. 부친의 성격은 상당히 엄격했고 까다로웠으며 모친의 성격은 자만심이 강하고 고집이 셋다 함. 환자가 23세 되던 해 원인불명의 질환으로 부친 사망. 27세 되던 해 모친도 부친과 같은 질환으로 사망 하였다.

School & Occupational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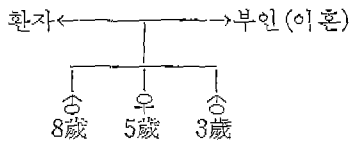
국민학교 : 원산국민학교
 중 학교 : 한흥 영생중학교 (5년제)에 입학하여 2학년때 한흥 학생사건에 가담하여 3개월간 정학처분 후 학교를 그만두고 현 서울 한양공고 토목과 2년제 졸업.
 대 학교 : 일본 와세다대학 고등전문학교 토목과 (1년 6개월)

학교때 성격은 중 정도였다고 한다. 28세에 육군에 입대하여 8년 전에 제대한 후 한국통신, 사진통신, 국외일보사에 근무, 그후 2년간은 조미로 군납품관계 사업에 종사함.

Marrital & Sexual History;

28세에 초혼하여 2년만에 자녀 없이 처가 사망하여 6년간 독신생활하다. 8년전 재혼하여 64년 8월에 이혼, 현재 삼 남매를 갖고 있다. 이혼 이유는 -무슨 일이든지 남편과 협조하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행동했으며, 거기에 대해 환자가 불평하면 몇 일 또는 몇 주일을 귀가하지 않고 아슬러 도박을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

자녀사항 :



Personality;

비교적 쾌활하며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의향성 성격이라고 한다.

Past Medical History;

13년전 군생활중 지리산 공비포벌시 (특무대) multiple gun shut wound 를 받아 15육군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생활 의에는 별로 특기할 사항 없음.

Physical Ex. and Neurological Ex.

특기사항 없음.

Mental status;

1. General appearance.
 body type: asthenic
 facial appearance; flat & apathetic.
 motor activity; underactive, negativistic.
 speech; occassionally irrational.
2. Flow of thought;
 difficulty in association, confusion.
 circumstantiality 가 있음.
3. Emotional reaction;
 affect; sad, indifferent, anxious, restless.
4. Content of thought;
 hypochondriacal.

5. Sensorium & intellectual resources orientation; poor.
memory; slightly impaired
counting & calculation; preserved.

6. Insight & judgement; poor.

입원경과 :

전(轉)입원 전 의식이 회복되자 환자는 服약을 거부하고 crying 을 보였으며 변비는 거짓으로 꾸며하며 방에서는 천주경, 군가들을 심히 부르고 박정권을 비난, 하루 종일 담배를 피우며 돈을 바지 가랭이, 양말 속에 감추고 처남이 부인과 차고 보상금을 타간다고 하며 밤 12시경 졸 되면 나갔다가 슬 마시고 슬럭 들어 오는 등 의사와 간호원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 5월 25일 전(轉)입원 초에는 anesthesia 가 upper extremities, flank 등에 부분적으로 나타났으나 척추액검사, routine lab. ex. 는 정상이었다. 그러나 환자는 귀로 바람이 들어와 다 죽게 됐다고 호소하였다. 침대에만 누워 있고 침대에서 배뇨, 식사는 사람의 눈을 피하여 빨리 먹고 안 먹은 것 처럼 덮어 두는 등 행동의 이상을 보였다. 이상과같은 증상으로 환자는 부득히 closed ward 에 수용 되었으며 3일 동안 압박붕대로 머리를 싸매고 있어 종종 환자모양 표면적으로 나타낼려고 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였다. “여기서는 주사도 안 놓아 주고 지옥보다 더 하다.” “다른

병원에서는 간호원이 굶실 굶실 했을 때 여기는 왜 이러느냐”하며 고향을 치기도 하였으나 3일 후에는 일어나 돌아 다니고 다른 환자와 잘 어울리며 상당히 유식한체 하려는게 눈에 띄일 정도였음. 때때로 창 밖을 내다보고 회사차는 와있고, 편회는 안오면 흥분하기도 하였다. 보상금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며 꿈에도 보상금 때문에 운전수와 차주를 고소하여 검찰청에 다녀 오는 꿈을 자주 꾸었다고 하였음. 보상문제 해결전에는 기분의 변화가 자주 왔었으나 보상이 해결된 후에는 불평이 없었고 지나치게 협조적이 었다.

Nursing Care;

I. Mental care; 보상성 신경증이므로 환자로 부더의 병의 인식을 덜어 주기 위해 필요 이상의 간호를 하지 않았고 흥분시에도 때로는 전혀 간호를 하지 않기도 하여 간호원은 환자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도 하였고, “우리와 잘 협조해야 잘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해 주기도 하였음. 처음에는 몹시 불쾌하게 여겼으나 후에는 점차 보상이 좋게 해결되자 지나치게 복종하였다.

II. Physical care; 식이, 소화장에는 전혀 없었으며 계속 정상적인 식사를 할도록 하였다. 식욕은 항상 좋았으나 다른 사람이나 간호원에게 는 입 맛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음식 섭취량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보아

식욕은 없다고 볼 수 없었다.

변비도 별로 없었으나 항상 있다고 호소하였다.

수면; 생각이 깊어서 매일 저녁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래서 mynal 150 mg 을 p.r.n. 으로 order 받았으나 실제적으로는 매일 저녁 복용하였는데 그 후에도 자지 않아서 tran-copal 2 tab 씩 추가하여 투약하였다. 이렇게 못 잤으나 보상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점점 정상화 되었다.

III. General care; 매일 routine care 를 해 주었으며 특히 목욕은 1주일에 2회 시켰고, 이발은 1주일에 1회로 해주었다.

보호자의 면회: 입원시에 환자 혼자 왔었고 그 후 심일경엔 친척 보호자 면회는 없었으나, 보상문제가 관련된 퇴사측 보호자 만이 면회 왔었다. 그 후 보상문제가 어느 정도 적절히 해결되니 이혼했다면 부인이 어련애와 같이 왔었고 그의 면회인은 없었다.

Exercise; 입원후 3일까지는 방안에만 누워 있어 배뇨도 간호원의 조력하에 했었다. 그후 보상문제가 점차 해결되니 복도에 나가 보행하며, 타 환자들과 얘기하는 정도였고, 오락실에서는 구경하는 정도였으나 보상문제가 완전 해결된 후에는 자신이 선동이 되며 탁구, 장기, 바둑을 즐겼고 노래자랑 시간에는 자신이 사회를 담당하여 꽤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활동불가능 환자들을

도와주기도 했고 퇴원시에는 지나치게 간섭하는 정도였다.

Medication;

chlorpromazine (자율신경 안정제) 200~400 mg/日, p.r.n. 으로 mileval 1 tab for constipation. 불면에 mynal 1 tab 과 tran-copal 2 tab 투약.

무취 주사맞기를 원하므로 1주일간 50% D/W 50 cc }
hicomin 2 cc } 1.V. 하였다.
vit.-C 200 mg }

결 락

보상성 신경성의 일례를 보고함에 있어 이 환자는 typical한 antisocial하고 Psychopathic 한 점이 그의 생활양식인 것 같았다. 본환자의 complaints 가 일련 malingering 이기 쉬우나 모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사고후 보상과 밀접한 관련이 많으므로 보상성 신경성으로 인정함이 가장 타당하였다. 본 질환의 증상증에서는 conversion neurosis 의 증상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다. 본원에 와서 증상호전이 온데 대하여는 우리의 진료분위기에 복종을 당한 것이고, 다른 병원에서는 그의 manipulation 대로 움직여졌기 때문이다. 강태는 극히 애매한 것 같고 불행운 가중시켜 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 history 를 보상과 관련시켜 그덜듯하게 꾸미러 하므로 불확실하여 이혼했다고 주장함도 믿기 힘

든 일이었다. 본 질환 유발의 유인이
 필만한 것으로는 경제적 곤란으로 자
 녀들과 살기가 힘들므로 보상금을 많
 이 받고 싶었던 것이다. 결국 basic-
 ally very sick 하고 psychopathic
 하게 정신분열증으로 발전할 가능성
 을 보였다. 증상의 호전에 있어서 보
 상금의 해결이 환자에게 유리하게 되
 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증례는 의상후의

보상문제와 함께 발전한 보상성 또는
 사고성 신경증의 일례로서 그 발생에
 있어 인격상의 결점이 크게 관여하고
 있으며 생활상의 곤란과 개인의 불안을
 보상금으로 유리하게 해결하려는
 이차적 병적 이득과 더불어 conv-
 ersion hysteria 를 주증상으로 하는
 신경증적 증상을 보였다가 적절한 간
 호와 치료로서 비교적 조속히 증상
 의 회복을 보인 경우이다.

내 과 간 호 학

반양장 · 갠지 · 四六배판.

값 < 일반가 700 원
 학생가 490 원

강 재 옥
 김 재 금 } 역
 손 대 관

기 초 간 호 학

홍 옥 순 편저

고급양장 · 모조 · 四六배판.

값 490 원

육 아 와 간 호

(구 소아 간호)

Gladys Sellev } 공저
 Marry F. Pepper

홍 옥 순 역

고급양장 · 모조 · 국판.

값 210 원

대한간호협회 출판부